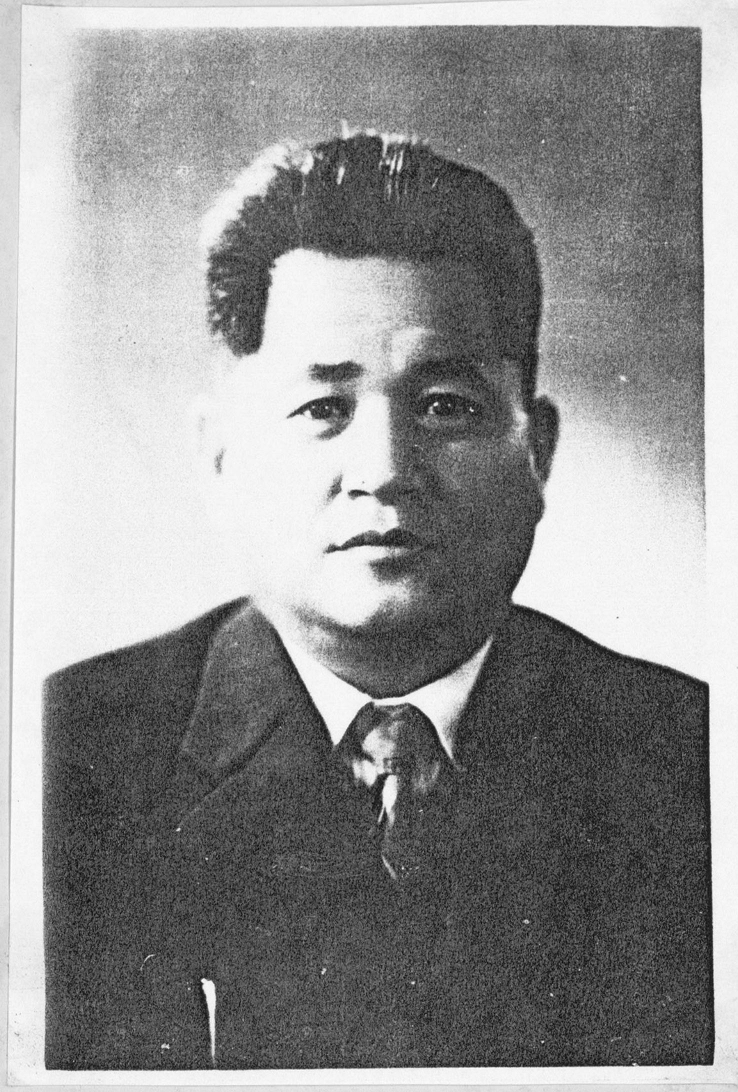


박 창 선 선 생

박 창선, (본명: 박 알렉세이 알렉싼드로위치) 선생은 1915년 11월 4일에 원동변강 쁘리모리주 쑤찬주역시 영동에서 농촌학교 교원인 박 알렉싼드르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박선생은 향촌에서 1926년 소학을 나왔으며, 1932년에 고중을 졸업하였다. 고중을 나온후 먼저 아버지가 세상떠나고 다음 1년후 또 어머니가 별세하였었다. 박선생은 양부모를 잃은 후 자기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게되였다. 1932년에 고중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에 공부하려갈 자격을 방불하였으나 경제상 문제때문에 향촌에서 약 20 낄로메타 떨어

진 곳에 위치하여있는 수청 탄광시에 (현재 빨치산쓰크) 있는 탄광 기술전문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것은 동 전문학교에서는 장학금도 잘 지불하여주고 숙소도 비교적 양호하였기 때문이었던바, 삼촌의 집에서 살고있는 박선생의 형편에 있어서는, 장차 전문학교 졸업후 탄광일이 바쁠것은 예측되였지만, 의식적으로 그길을 택하였다. 박창선 선생은 1935년에 수청 탄광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동 탄광에서 브리가다 기술지도자로 부터 시작하여 현장장에 이르기까지 2년간 모범적으로 일하시였다.

1937년에 원동으로 부터 한인들이 강제이주시기에 박선생은 삼촌의 가정을 따라 우즈베크한, 타슈켄트주, 중칠칙구역 레닌명칭 꼴호즈에 도착하였다. 동 꼴호즈는 원동에서 그 꼴호즈 조직창시 때 부터 살고있던 협동조합원들이 그대로 조직적으로 이주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시영동 꼴호즈라고 불렀다. 박선생은 삼촌의 손을바라보고 살수없는 형편에서 시간을 느추지 않고 자기 직무를 변경하여 소학교, 초중등 학교들에서 교편을 잡고 일하면서 1939년도 부터 타슈켄트 사대 통신학부에 입학하여 1944년에 사대 어문학부를 수료하였다.

항상 그 품행이 단정하고 연사성이 밝은 박선생은 원동에있을때에도 시영동 사람들은 항상 어린 학생 시절부터 똑똑한 인간으로 인정하였었다. 그런데 양부모를 다 잃고서도 아무런 큰 고생이 없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일도 제대로 꽤 잘하니 동네 사람들도 신망이 높았다. 이당시에, 즉 소련조국전쟁의 어려운 시기였지만 박선생의 위신은 높아 1941년에 소련공산당 후보당원으로 입당하였으며, 1942년 여름 방학시기에 박선생은 같은 동리에서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있는 미인처럼 고마리야 미하일롭나와 약혼하여 삼촌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하였다. 그후 박선생 양측은 아주

다정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형제 딸 3형제를 양육하여 역군으로 내세웠다.

사진은 박창선과 고 마리야 미하일롭나 양 두 양주가 1945년에 타슈켄트에서 찍은것이다.

박선생은 1942년 부터 1946년까지 즉 북한에 파견되여 나가실때까지 타슈켄트주 중칠칙군역 레닌명칭 협동조합에 있는 고등에서 어문학교원으로 일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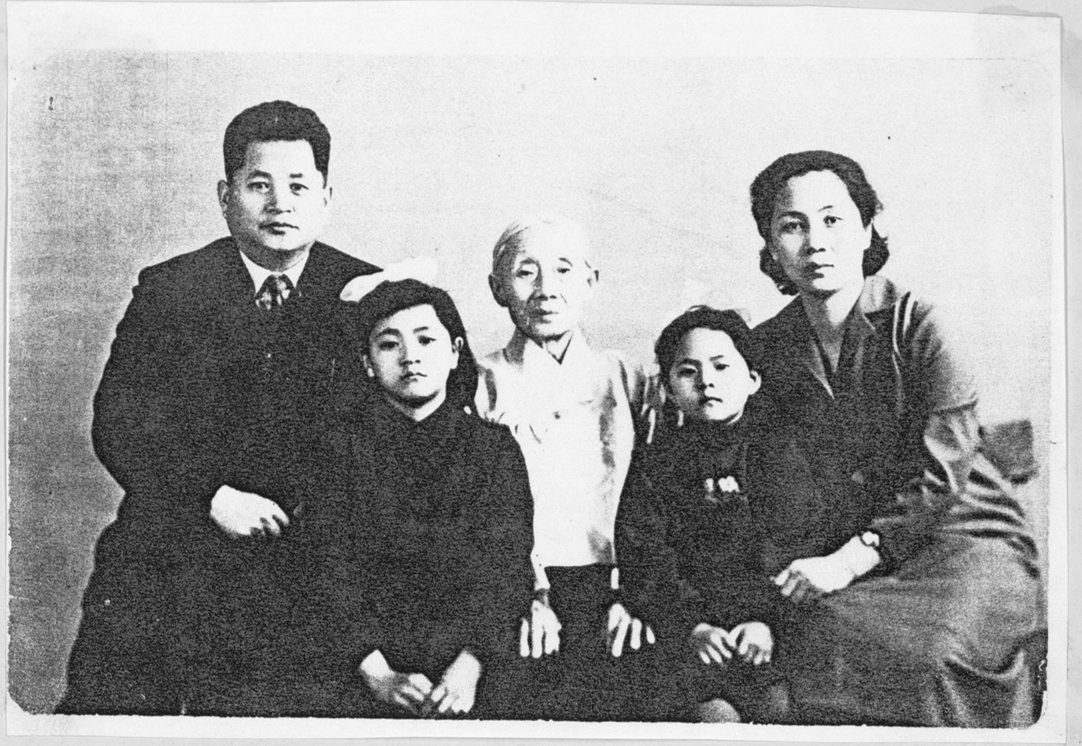
박선생은 1946년 4월 부터 1946년 11월까지 우즈벡공화국 교육성에서 조직한 단기특별 로어교원 강습을 졸업한후 북한에 파견되여 나가게 되였던바, 북한에 도착한 박선생은 처음 1946년 12월 1일부터 1948년 2월 28일까지 함북 청진사대 교육부학장으로 일하시였다.
1948년 3월 1일부터 1949년 7월 17일까지 평양사대 부학장으로 계셨으며, 그후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9월 10일까지 평양로대 학장으로 일하시였다.
1950년 6월 25일에 동족상잔이 벌어지자 박선생도

인민군대에 초모되여 군복을 입게 되셨던바 바로 이때부터는 인민군대 군인교양사업에 자기 력량을 이바지 하게 되였던바 1950년 9월 9일부터 보병 36사 문화정치부사단장으로 임명되여 사리원 해주계선까지 나가시였다가 유엔군의 압력에 의하여 동만주 연길시에 약 3개월 주둔하면서 약간의 전술 훈련을 한다음 다시 강원도 철원 계선까지 행군하여 나온다음 사단은 강원도에 계속 주둔하여 있던 유명한 최현사령관의 관리하는 인민군 제2군단에 배속시켰으나 박선생은 그 사단에서 전근되여 조선인민군 항공사령부 관할하에 훈련하고 있는 항공 제2 전투기사단 정치부사단장으로 일하시게 되였다.

그 당시 항공사령부 관하에는 2개의 전투기 사단, 그중에서 제일 전투기 사단은 제트기사단 즉 그때까지는 최신 기술로 무장된 방사기 사단이였으며, 제3사단은 폭격기 사단, 제4 사단은 기술사단이였다. 박선생이 복무한 사단의 사단장은 소장 허민국, 부사단장에 항공사령부 산하 첫 비행사공화국 영웅 대좌 김기옥이였다. 사단의 기본 전투무기는 쏘련제 비행기«Ла-10»전투기였던바, 이 비행기들은 아직 방사기가 아니라 프로펠라-즉 발란개비가 돌아가는 비행기였다. 이외에 항 사령부 관하에 여성 비행 야간폭격기 대대가 있었던바 대대장에 여성, 공화국 비행사 영웅 태선희양이였으며 중대장 3명 중 제일 과감하게 야간폭격을 수행한 여성비행사는 진을란양이였다. 대대의 기본 전투무기는 쏘련제 비행기«뽀-2»였던바 본래 이 비행기는 쏘련에서 신 비행사 훈련용이나 초원이나, 산악, 삼림지방에서 흔히 우편물 운반에 사용하며, 농촌경리에서 해충과의 투쟁에서 사용하는 비행기이다 비행 시속은 200-250 k.м. 비행고는 약 1000 메타 정도다. 항공사령부 산하 제1 방사기 사단이 동족상잔 3년간의 기본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 항공방사기 사단장에 어전일제 시대 비행사 소위, 그 당시 소장 강대용, 비행 부사단장에 김히경, 3개 련대장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게 전투한 비행사는 공화국 영웅 대극성, 역시 공화국영웅 강정덕 등비행사들이다. 제1 항공방사기 사단 비행사 성원들은 전부다 1950년 이전까지 쏘련에 들어와 대학 유학생으로 공부하던 3-4학년급 학생들을 1950년 말기에 급격하게 송환하여, 쏘련 3중 비행사 영웅 끄제두부 사단과 동만 동화에서 만나게하여, 5개월간 즉 1951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밤이면 4시간식 비행 리론 강의를 듣는 한편 낮이면 비행장에 나가 각 쏘련비행사 한명이 자기비행기에 조선비행사 한명식 (아직 학생) 앉쳐놓고 실무적 상학을 수행하여 8월 초순부터 비행 단독훈련을 시작하여 1951년 9말부터 벌서 단독훈련을 종결하고 전투훈련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10월말부터 쏘련비행사들의 엄호하에 미국 비행사들과의 전투를 진행하였다. 전투진입 초기에는 비상사고로, 전투원손실도 있었지만 1952년 부터는 전체 비행사들이 영웅적으로 진출하여 미국 및 유엔 비행사들에게 영웅성을 발휘하면서 미항공 김포비행장 주재 사령관 맨플리츠의아들 대대장을 추락하고 그를 포로하였섰다.

이 당시 항공 사령부 사령관에 왕련 중장, 비행부사령관에 리활 소장, 참모장에 김원길 소장, 군사위원에 김태전 소장등 간부들이 일하시였다. 1952년 11월에 있은에 삐소드를 회고하여 보기로 하자, 김일성 최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여성 폭격대대는 김포비행장과 인천항 원류저장소를 폭격하여야 하였다. 항공사령부 성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철저하게 실행키위하여 몇일 동안 준비에 긴급하여 들어갔다.



사진은 1960년에 박선생이 문화선전성 산하 국영 중앙도서관 관장으로 계실시에 찍은것이다.
뒷줄에: 박선생, 박선생의 장모님, 박선생의 부인 고 마리아,
앞줄에: 2녀 - 박 릴라, 3녀 - 박 달리아.

야간 폭격기 2대는 채선희 대위, 전율란 상위가 두비행사들이 몰고 나갈예정이었으나 준비상 거실되는 문제가 있어 비행기 한대에 두비행사를 태울예정이였다. 조정사에 전율란, 항법사에 채선희로 결정되였었다. 비행기에는 약 250 킬로 소형 폭탄을 적재하고 떠나가, 어떤 큰 파괴를 일글녹 적어라기보다 남한인민에게 큰 여론을 일구고 북한의 전쟁대 승리의 날이 가까와 온다는 목적이였다. 그런데 여전에는 아주 용이하게 이륙하던 비행기가 제대로 이륙하지 못하고 약 200 메터 밖에 없는 옥수수밭에가 다시 가만히 착륙하고 말았다. 다행히 적재한 폭탄들은 파괴되지 않아 인원 피해는 없었으나,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실행못한것이 제일큰탈이였다. 비행장에 몰인 기술근무원 성원들은 비행기의 재차 리륙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강냉이 밭에가서 불의 착륙을 하다보니 비행기 다리도 휘여들고, 각익단등

등도 하지는 한편 익단에 부착시힌 측도계, 고도계 등이 전부다 오작라
진 까닭이였다. 그리고 비행사들도 신경을 극도에 이르기까지 긴장
식혔던 환경에서 인제는 맥이 다 풀어져 다시 수습 정비할 확증
성이 없었다. 그런데 박창선 선생에게 큰 화단이 생겨났다. 문제는
박선생의 종전직무 정치부 사단장에서 1952년 8월부터 전근되어
사령부 정치안전부장 직무에서 일하시였다. 정치안전부란 것은
(안기부, 혹은 특무부라고도 하는바) 항공사령부내에서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때에 적발하여 인민군 총정치안전국에 보고를 제출해야 되
며 그에 대처할 대책들을 제때에 취하여야 되였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태선히와 진을란이 조종하는 비행기 뜨지못하였으며,
전투임무로 수행하지 못한것을 항공사령부 참모장 김원길 소장, 비
행부 사령관 리활 등 두 장령은 최고사령관 관저에 찾아가서 참
모장이 앞에서고 부사령관이 뒤에서서 오른손을 이마 옆에 부치
고 정식보고를 =《최고사령관 동지! 항공사령부 야간폭격대
대는 김포비행장과 인천연유창고를 포격하여 대성공을 이룩
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일성이는 이보고를 받고 너무나 좋
아서 자기부관을 부르고 작전부장, 부참모장등을 불러놓고 이들에
게 군사칭호 일급식 높일것과 또 태선히 진을란에도 일급식
높여줄 명령서를 작성할것을 명령하였다 그 이튿날부터 김원봉
이와 리활이는 중장 견장을 부치고 자기 일자리에 나왔으나
태선히와 진을란이는 군복도 입지않고 자기침대에서 일어나
지도 않고 밥도먹지 않고, 앓는다고 신음을 하면서 침대
에 누어서 계속 울고있었다 이때에 점차적으로 정치안전
부에 이상한 통보가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제일
이상한것은 김포비행장이나 인천원류창고가 폭격당
하였다면 서울라지오 방송이 상당히 소동을 일굴
터인데 아무런 방송도 없는데 평양방송은 없은사실

을 위조하여 가지고 야간폭격의 대 성공에 대하여 몇일간 계속 나팔을불었다. 이에대하여 박창선 선생은 항공사령부 정치안전부장으로써 의심을 품고 있는데 녀성대대정치안전군관으로 부터 이상한 통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대대장 태선희가 몇끼째 밥을먹지않고 침대에 눕어 고민하면서 울고만 있다는것이였다. 박창선부장은 이에 대하여 태선희하고 물었으나 아무대답도 없이 울기만하는것이였다. 박부장은 무슨이상한 일이 생긴것은 틀림없는데 알수가 없어 생각하던 끝에 전화를 들고 인민군 최고사령부 정치안전국장 석산 소장에게 보고하였다. 석산국장은 그적석으로 차를 타고 최고사령부 검찰국장과 같이 항공사령부에 내려왔다. 처음에 왕련 사령관에게 간단한 인사를 올린다음 박창선부장과 몇시간 담화가 있은다음 석산국장이 혼자 군의소에 가서 태선희를 만나 조용히 인사의 말씀이 있은다음, 무슨일 때문인지 실토하라고 권고하였다. 태선희는 처음에는 약 십분간 말없이 울기만하다가 실토하겠다고 하고서는 ≪ 우리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뜨지도 못하였으며, 김포비행장과 인천포격에 대한 보고는 허위보고였다는것을 말하고, 자기들은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없다고 하면서 허위보고는 사령부에서 조작하여 최고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였다. ≫ 그것은 사실 그러하였다. 그런데 항공사령부에서 조작하여 최고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는것은 우선 박창선부장에게 제일 큰 책임 있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그런 허위보고가 조생치못하게 하며, 또 최고사령관에게 허위보고가 전달되지 못하는데는 정치안전부가 기본 역할을 하여야 하였다.

여하튼간에 1952년을 보내며, 1953년을 맞어하는 송구영신 명절에 몇명 고급간부들은 속간장을 태우고있는 환경에서 박창선 선생도 편치않았다. 끝끝내 1953년 정월 12일에 최사령관의 명령 ≪ 인민군 군목자들의 정직성에 대하여≫가

나왔다. 명령서 내용은 강하지 않게 썼으며, 군복자들의 일반적 정직성에 대하여서와 어떻게 하여야 될것인가에 대하여서와 정직성 교양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특별히 항공사령부 관하에서 이에 관심을 돌리라는것을 강조하면서, 허위보고와 최고사령관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것은 기록되지 않았었다. 그 몇일후, 항공사령부 참모장, 군사위원, 사령관 세명은 철직되었으며, 차후 참모장 김원길과, 군사위원 김해건은 투옥처단되였었다. 그런데 박창선 부장에 대한 문제다. 우선 정치안전부장이 아주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하였으나, 박창선에게는 아주 강한 엄호자가 있었다 그것은 최고사령부 정치안전국장 석산 국장이였다. 석산이는 원래 김일성 빨치산 출신이며 총명하고 신중하여 문제처리를 어느때를 물론하고 바로 하였으며 종파에 관념을 두지않고 사람의 질이 좋으면 좋은대로 좋게 해결하였다. 석산이는 김일성에게 있어서도 대심복자였다.

최고사령부 군사위원회 1952년 12월 회의에서 항공사령부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서 포병사령부 참모장 정학준이와 작전국장 유성철이는 김원길, 김해건, 방창선 3명은 총살하여야 된다고 제기하고, 왕련 사령관과 리활 부사령관들은 철직 제하여 총신 전역사리를 보내라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석산 국장은 김원길이나 김해건 또 박창선등 지도자들이 직접 비행장에서 전투업수행을 지도하지 않았기때문에 좀관대히 처리하는것이 좋겠다고하면서 특히 박창선에게 대하여서는 그가 항공사령부 정치안전부장으로 전근된지 2개월밖에 안되며, 또 정치안전계통 사업의 처음이되다 보니 현재 요해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처벌을 도저히 줄수없다고 말하면서 황시 제2비행사단에서 정치부장 직무에서 당정치사업들을 잘하였기때문에 사령부정치안전부장으로 승급시킨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감싸주었다.

이렇게 되여 박창선 부장은 대처벌은 모면하였으나 인민군대내 그 직무에서 오래견디지 못하고 1953년 10월말 일에 군대에서 제대되여 개성 경제대학 부학장으로 조동되여갔다.

석산이는 왜 박창선이를 그렇게 싸 주었는가? 그것은 간부에대한 편견성이나 종파적 견지가 석산이에게는 없으며, 본래사람의 품성이 사람 답게 생긴사람이며, 둘째로 창선이가 북한에 도착하여 처음 청진 사대 부학장할때부터 두분은 아주 친하게 지내였기때문이였다.

박창선 선생은 1954년5월 17일에 문화선전성 외사부장으로 전근되여 평양에 올라오게 되였다. 평양에 또 좋은직무에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벌써 어때부터 당 내부는 들끓기 시작하였다. 박헌영이와 이승엽이를 일본스파이니, 미국스파이니 꼬리표를 달아 청산한다음 허가이도 암살하고 인제는 남한에서 들어온 우리동포 간부들은 완전히 청산한 다음 당내에서는 당 사상 검토사업을 열어 놓고 전체 외국 출신간부들을 모조리 청산하면서 당내 독재제도 민족적 군국주의에 세습제도를 꾸리는 때였다. 박선생은 문화 선전성에 올라와 애쓰고 일하였지만 닥어 당사상 검토회의에서는 박선생을 자기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며, 다른사람을 비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지향 목적성이 없이 출근만 한다니 하면서 당 사상검토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하부기관에 전근시켜야 된다고 결정하고 외사부장 직에서 국가 도서관장직으로 내리 밀었다. 박선생은 이 도서관장 직 후, 이 묻지끼고 책 좀지들이 날아가는 냄새속에서 연 4년간 간장을 말리다가 결국 1962년 초순에 쏘련에 귀국하였다. 쏘련 타슈켄트에 와서 사택도 배정받고 아이들도 취직및 공부문제도 해결하고 본인도 취직하여 행복하게 계시다가 1975년 4월 21일에 별세하시였다.